

목포의 도시, 건축 들여다보기 A Glance into City and Architecture of Mokpo

유우상/초당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Yoo Uoo-Sang

들어가는 말 - 정체와 낙후로부터의 혜택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와 유달산으로 잘 알려진 목포는 1897년 개항한 이후 호남 제1의 항구이다. 조선 정부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개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지배하의 목포는 호남 서남부의 중심도시로 특히 영상강 유역을 따라 전개되는 나주평야의 쌀과 면화를 수집하여 일본으로 반출하고 일본의 공업제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점 항구도시였다. 1930년대 중반 목포는 전국 6대 도시에 들만큼 성장하였지만 1945년의 해방은 이러한 식민지적 지역체제의 붕괴가 시작되는 계기였으며 목포는 침체의 길로 접어들었다.

1960년대 이후 본격화된 산업화는 농업중심의 호남지역을 상대적 저발전 지역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의 사회발전이 지극히 중앙 중심적이었고, 산업화 또한 동남해안 지역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목포권도 이런 구조적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도시의 인구 규모, 산업시설, 도시주민의 생활기반시설, 그리고 각종 교통망 등에 반영되었다. 그 단적인 예로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30년간 계속된 호남선 복선화사업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목포는 철도망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였으며, 197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가장 주요한 교통망이었던 고속도로 또한 목포에 연결되지 않았다. 대규모 항만시설을 마련하려는 노력도 여의치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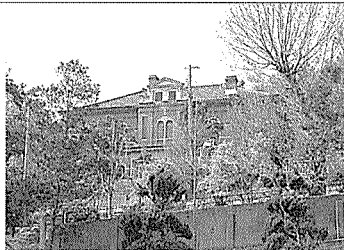
개항 100년을 넘어선 현재 목포는 전국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인구 25만 정도의 중소도시일 뿐이다. 60년대 이후 급속히 산업화의 길로 나선 여타 도시들은 맹렬한 속도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개발이라는 경제논리에 팔아 넘겼으며 그 결과 획일적인 도시구조와 경관에 포위되어 버렸다. 상대적으로 소규모 개발이 진행되었고 속도도 느렸던 목포는 여타지역에 비해 경제적인 혜택은 적었을지라도 도시의 구조와 경관은 비교적 옛 모습을 많이 간직할 수 있었다. 지역의 정체성(Identity)이 강조되고 그것이 곧 자원이 되어 지역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시대인 오늘 목포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정체와 낙후로부터 미래의 발전에 큰 보답을 받고 있는 셈이다.

목포의 도시 읽기

목포라는 도시의 특색(지역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목포가 갖고 있는 정체성(Identity)과 구조(Structure)를 파악하여 그 의미(Meaning)를 발견한다는 것이다. 정체성과 구조는 강한 환경이미지(Environmental Image)로부터 얻어지며 이것은 관찰자와 환경과의 사이에 행하여지는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즉 그것은 개개의 인간이 물리적인 외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종합적인 심상이다.

목포의 환경이미지는 먼저 유달산의 독특한 프로필과 바다와 만나는 수변지역으로부터 형성되어진다. 이미 육지화되어 그 힘이 약화되긴 했지만 세 마리 학의 전설을 담고 있는 삼학도와 갯바위, 대반동의 낙조는 목포의 환경이미지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해준다. 목포항을 중심으로 한 개항 당시 조성된 각국 조계 지역은 개발의 광복성을 피해 여전히 그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목포의 2차적인 환경이미지를 이룬다. 1, 2, 3호 광장이라 불리는 도로의 절점과 이를 관통하여 목포를 타 지역과 연결하는 1번 국도, 그리고 목포역으로부터 뻗어처럼 구불거리며 달아나는 철길은 목포의 또 다른 이미지를 구성한다.

목포는 이와 같이 유달산과 그 기슭에 펼쳐진 해안선으로 특징 지워지는 자연 환경과 근 100년의 역사를 지



조계 구역 내에 있는 목포문화원 (구 일본 영사관)



목포 여객터미널 청사



최근 완공된 국제여객터미널

닌 각국 조계 지역의 근대식 가로체계, 강력한 힘과 집중력을 보여주는 도로와 철길의 인공적인 이미지가 어우러져 목포의 정체성과 도시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목포의 발전과정과 환경이 이미지로부터 목포는 크게 다음의 세 지역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

첫째, 목포항을 중심으로 한 조계지역과 유달산과 그 기슭의 구 조선인촌지역 등을 포함하는 구 목포지역.

둘째, 간척과 매립으로 확장된 도시영역으로 현 목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시가 지역.

셋째, 1980년대 완공된 영산강 하구언 댐과 대규모 매립사업으로 조성된 하당지구와 갯바위 문화권.

이들 세 지역은 각각 자연적, 역사적 맥락과 도시구조가 다르며 현재의 발전양상도 뚜렷한 차이점을 보인다. 앞으로 이들 세 지역의 도시 구조적 특성과 그 지역의 환경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현대건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 목포지역

개항 당시 서구의 도시 계획적 기법이 적용되어 조성된 각국 조계 지역을 바탕으로 아직도 초기의 가로체계와 일제시대의 건물들이 남아있는 곳이다. 특히 현 목포문화원(구 일본영사관) 일대의 거리는 당시의 모습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다. 현존하는 목포의 일제시대 건물 중 수작 가운데 하나인 목포문화원은 도로의 끝에 있는 언덕 위에 위치하여 이 일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로 조계 지역 내 일본구역을 내려다보고 있다. 이 일본지역의 건물들은 원형이 헐리고 개축이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로의 체계나 건물의 규모는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이 지역의 개발과 보존에 좋은 교사가 되고 있다.

반면에 목포문화원으로부터 불과 50여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남부교회는 건물의 규모가 주변 건물보다 지나치게 크며 벽돌, 화강석, 유리 등으로 구성된 마감재료의 혼란과 더불어 지나치게 많은 조형언어로 인해 인접한 목포문화원의 고전적 언어의 단아한 표현과 대조를 이룬다.

일본구역으로부터 바다 쪽으로 이동하면 목포

항과 주변의 시장통이 나타난다. 목포항은 주로 고깃배와 연안 여객선의 입출항으로 그 기능이 한정되어 있고 항구 주변에는 역시 오래된 가로가 보존되어 있다. 좁은 가로 곳곳에는 일제시대의 2층 석조건물이 심심지 않게 눈에 띄며 아직도 주변 상점과 함께 선구점, 횡집 등으로 훌륭하게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이 지역 여러 곳에서 주변의 척도를 무시한 현대건축들이 등장하고 있어 체계적인 도시계획이나 가로망의 정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포항에서 가장 큰 건물은 여객터미널이다. 콘크리트로 된 2층 백색 건물은 수평성을 강조하듯 길게 누워 있다. 근대건축의 무장식 선호를 충실히 지킨 이 건물은 그러나 바다로 향하는 여객들의 마음에 무엇을 남겨 줄 수 있을까. 수백미터 남쪽에 완공된 국제여객터미널은 아직 문은 열지 않았지만 육중한 매스의 중압감을 줄이려는 듯 몸통을 유리벽으로 덮고 몇 개의 덩어리로 분절하고 있다. 바다 쪽으로 면한 외부 계단의 조각적인 처리와 입구를 강조하는 붉은 처마띠가 자칫 지루해 보이는 넓은 유리면에 생기를 준다.

국제여객터미널 앞의 해안도로를 따라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는 박제처럼 남아 있는 썬보선장을 지나 대반동 해안에 이르게 되는데 유달산 뒤통수를 바라보는 자리에 신안비치호텔이 서 있다. 거대한 벽과 같이 바다와 유달산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목포에서 가장 큰 이 호텔은 사각창의 입면과 바다로부터 단절된 조경계획 등 주변의 경관에는 관심 없는 듯 무심한 큰 등짝을 서해바다로 돌려놓고 있다.

신시가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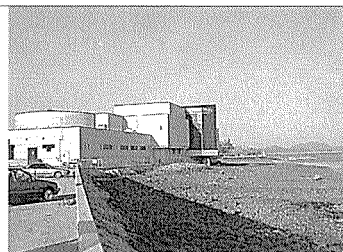
목포역으로 향하는 철길을 보면 구불구불 휘어져 가는데 이는 원래 목포의 해안선을 따라 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현재 비교적 반듯한 목포의 해안선은 대부분 간척과 매립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유달산과 그 기슭을 중심으로 한 구 목포권으로부터 도시가 성장해 감에 따라 간척과 매립으로 생겨난 새로운 땅으로 목포시가 확장되어 갔는데 그 대표적인 지역이 삼학도와 갯바위로 이어진 현재의 용당동, 동명동 지역이다. 그



목포 MBC



그린 산부인과 병원(포스트 모던 계열)



국립 해양유물전시관
(바다로 향한 유리 상자가 돋보인다)

외 북향 쪽의 죽교동과 최근에 조성된 하당지구 등이 있다.

하당을 제외하고도 간척, 매립으로 이루어진 소위 신시가지지역은 점점이 솟아 있는 수많은 언덕들과 어우러져 오늘날 목포의 가장 보편적인 도시형태를 구성한다. 조계지역이나 목포항 주변의 근대식 직교좌표계 가로체계와는 달리 매립지로 생겨난 많은 지역의 도로는 체계적인 도로계획의 미비와 지형의 영향 등으로 인해 불규칙적인 도로구조를 갖고 있다. 구 목포와 타 지방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였던 1번 국도가 남북 축을 형성한다면 새로 생겨난 신시가지 사이를 연결하는 대로들은 여러 겹의 동서축 도로를 형성하여 오늘날의 목포의 간선도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들 동서도로들과 1번 국도가 만나는 절점이 1, 2, 3호 광장으로 대표되는 삼, 사 또는 오거리 교차로이며 타지방에서 목포로 향하는 차량들을 마치 카운트 다운하듯이 도시의 심장부로 유도한다.

이 광장들은 목포 길찾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절점으로 광장 주변은 다른 곳에 비해 개발이 밀도 높게 이루어져 왔다. 도시 외곽에서 3호 광장으로 접근하다보면 왼쪽에 보랏빛 띠를 누른 목포 MBC건물이 보인다. 목포의 현대건축의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는 이 건물은 방송국의 컨테이너와 같은 매스를 몇 개로 쪼개고 안테나와 연계된 중앙의 원통형 매스로 무거운 박스 형태에 중심을 잡아준다.

2호 광장 근처에서 발견되는 일련의 3층 짜리 주상복합 건물군은 1번 국도가 확장되면서 일찍이 건축된 듯하다. 전면 유리 원도우의 1층 상점과 넓은 사각창을 갖고 있는 2층 주거부, 그리고 2중 수평띠로 강조된 파라펫 위로 아마도 추후에 덧붙여진 듯한 정리가 안된 3층 주거부로 구성된 이 상가 건물들은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는 건축이 취해야 할 방향을 예시하고 있다.

1호 광장 주변에서 여간 낯설지 않은 건물이 보이는데 바로 전국의 체인화를 선언한 교보생명이다. 갈색 기둥과 비대칭으로 놓인 저층부의 입구 처리는 서울 아버지의 판박이이며 한 세대 위의 동경 미국대사관의 사생아임을 광고한다. 목포도 한국의 경제권에 편입되어 있음을 알리는 간판과도 같다.

광장 건너편에 조금은 대담하게 자신을 드러

내고 있는 그린 산부인과 병원은 우선 색채가 대담하다. 정면과 측면의 형태와 재질의 대비, 입구와 정상부의 디자인 대비 등 포스트 모던 계열의 건물이다. 주변 건물과의 조화보다는 개성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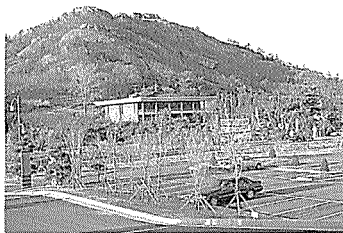
1호 광장에서 목포역 사이의 금융가에 새로 들어선 LG증권은 목포의 중심부에서 가장 덩치 큰 건물이다. 신고전주의적 기단부와 정상부의 관 모양 장식은 어느 대도시의 금융증권가를 수놓고 있는 금융신전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하당지구와 갯바위 문화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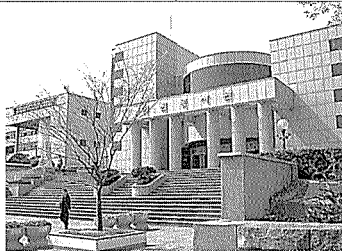
하당신도시는 미래의 목포를 담보로 계획된 목포의 분당이다. 단지 중앙에 상업지역을, 외곽에 아파트 단지를 배치한 대칭형 마스터 플랜은 매립선을 따라 바다로 열린다. 하당의 상업지역은 아직 공지가 많아 건축의 흐름을 살펴보기 힘들다 중심상업지구는 당분간 허용된 용적률 1,500%를 채우는 건물을 보기 힘들 것 같다. 격자형 가로체계로 구획되는 아파트 단지에는 전국표준형인 직사각형 상자들이 평행으로 배치된 물개성의 베드 타운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아직 바다 쪽의 지반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더 두고 봐야겠지만 임해 신도시의 정체성을 갖게 될지 걱정하게 하는 일들이 지금 하당에선 매일 일어나고 있다.

구 목포지역을 뺀 나머지 도시권역에서 갯바위 문화권만큼 흥미롭고 논쟁이 되는 지역은 없다. 삼학도와 하당지구 사이의 바위산(임암산)과 바다 사이를 이용한 문화예술시설의 집중적인 배치는 그 발상 자체로도 신선하며 지역 개발의 한 예로서 회자될 것임에 틀림없다.

갯바위권은 도시의 중심부와 신시가지, 그리고 하당신도심으로부터 모두 인접해 있으며, 임암산의 병풍 같은 바위와 영암만에 면해 있어 문화시설로 최적의 지리적, 자연적 조건을 갖춘 곳이다. 현재 이 곳에는 국립해양유물 전시관, 목포 문화예술회관, 남농전시관, 그리고 목포 향토전시관이 자리하고 있다. 해양유물 전시관과 문화예술회관은 바다 쪽에, 남농기념관과 향토전시관은 임암산 쪽에 위치하는데 이 지



뒷산에 안겨 있듯 자리한 남농기념관



목포시청(비록 기단위에 있으나 단순한 매스가 조화롭고 정면의 열주가 인상적)



대성실험회관(정면의 처리가 신선하나 측면과의 조화가 문제)

역을 통과하는 유일한 도로가 그 사이로 달린다. 아마도 갯바위 문화권 계획에서 가장 비판받아야할 점이 바로 이 도로의 위치로 전체 문화시설을 하나로 어우르지 못하고 두 개씩 갈라 버리고 말았다. 통과교통을 위한 우회도로나 또는 일정 부분은 지하로 넣어 네 개의 문화시설이 통합되는 외부공간을 형성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바다에 면한 두 시설 모두 기능적으로 상자형의 큰 공간이 필요하지만 바다에 대한 배려가 배치와 입면 모두에서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갯벌에 입지한 두 건물이 모두 높은 기단 위에 앉혀 있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바다를 보행자의 시선으로부터 차단한다. 해양유물 전시관의 내부 전망 공간이 바다로 돌출하여 영암만을 건물의 외부공간으로 차입하고 지상부의 필로티를 통하여 외부에서도 바다로 접근하는 길을 열어놓은 반면, 문화예술회관은 높은 진입 계단과 불투명한 사각형 매스가 전체의 입지 조건을 무색하게 한다. 길 건너편의 남농기념관과 함께 문화예술회관의 전통 건축의 형태 차용 또한 짙고 넘어가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남농기념관은 전통 건축의 모임 지붕을 콘크리트로 재현했으나 배경이 되는 임암산 줄기에 안기는 듯한 알맞은 규모와 유연한 처마선은 보는 이의 눈맛에 든다.

나가는 글

지금까지 목포의 도시 이미지와 지역에 따른 상이한 구조를 살펴보고 각 지역 별로 중요한 환경이미지가 되는 현대건축들을 몇 개씩 소개하였다. 이 글은 각 건물을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하지 않았으며 다만 도시 경관에 관계되는 몇 가지 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간단히 언급하였다. 목포는 빼어난 자연 조건(유달산과 바다)을 갖고 비교적 풍부하고 손상되지 않은 건축과 도시의 구조를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반세기의 침체와 경제 발전에서 소외되어 온 반대급부인 이런 장점을 최대한 살려 나가면서 미래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목포가 정체성과 구조를 잃지 않으면서 그 의미를 지키고 강화해 나가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제언을 붙이면서 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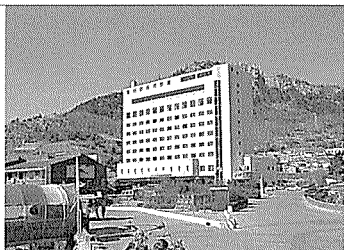
마무리 하고자 한다.

첫째, 도시의 각 지역별로 특성화된 도시계획의 수립이 시급하다. 즉 조계지역이나 목포항 주변의 격자형 근대도시 지구는 가로체계와 남아있는 근대건축을 최대한 유지하고 가구 단위의 건물규모를 지정하면서 보행자전용 관광 지구로 특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당지구와 같은 신계획도심은 자동차와 고층건물에 맞는 가구단위와 도로체계를 구성하여 각 지구간 뚜렷한 정체성을 확보하도록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도시의 각 지역은 경관과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유달산과 바다로 향한 조망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유달산 등을 도시의 자연적 랜드마크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개의 건축물은 주변의 건물이나 가로체계, 자연환경 등에 관심과 배려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형태적 유사성이던지 또는 사회, 역사적 맥락의 조화이던지, 주변 환경을 고려한 건축은 그것들이 모여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 궁극적인 지역적 정체성, 즉 지역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반동 해안에 있는 신안비치호텔 마치 병풍처럼 유달산을 가린다.



목포에도 예외 없이 보이는 교보생명 빌딩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물개성한 하당의 아파트군